

엔비디아 'AI 거품론' 잠재우나 SK·삼성, HBM 공급수혜 기대

증권가, 2분기 '깜짝실적' 전망
호실적 달성시 韓기업 호재 작용
MS 부진으로 인한 우려 시각도

엔비디아의 상반기 실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분기 IT 업계를 뒤흔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무릎을 꿇을지, 아니면 거품론을 불사하고 다시 한 번 AI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오는 28일 현지시간 뉴욕 증시 마감 후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치 컨센서스는 주당순이익(EPS) 0.64달러, 매출액 286억8000만달러(약 38조1157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2025회계연도 1분기(2024년 2~4월) 실적 발표 당시 엔비디아 측에서 제시했던 2분기 매출액 가이드스 280억달러(약 37조2120억원)를 넘어선다.

이러한 전망은 전세계적인 AI 개발 붐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최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엔비디아의 GP

U 시장 점유율은 업계 추정 80% 이상인데, GPU 시장에서 가장 큰 주요 시장만을 따져봤을 때 이미 90% 수준에 육박한다.

특히 데이터센터용 GPU 부문에서의 엔비디아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테크인사이트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데이터센터용 GPU 출하량이 376만대로 2022년 264만대보다 40% 증가했는데,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 98%에 달한다. 이를 통한 매출은 362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배 늘었다.

산업계 외에서도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지난 4월 게임 플랫폼 스팀이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엔비디아의 제품이 전체의 76.59%에 달했다. 가장 많이 이용 중인 GPU 모델 또한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엔비디아의 제품이었다.

부정적 시각도 있다. AI 선도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난 2분기 실적은 AI 거품론을 지켰다. MS는 지난 2분기(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647억달러(약 89조원), 순이익은 220억달러(약 3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지난해 보다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5%, 순이익은 10% 늘었

다고 알렸다. 그러나 AI 운영의 핵심 부분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사업 매출 성장률이 29%에 그쳤고 AI 서비스 성장률은 8%p로 나타나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다.

MS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은 곧 AI 거품론과 함께 기업들의 AI 개발 비용의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른 아세모글루 MIT 교수는 "AI가 전체 작업의 5% 미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AI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개발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개발 비용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AI 개발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MS 등 M7(애플·MS·알파벳·아마존·테슬라·엔비디아·메타)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혀 AI 거품론과 개발 비용 축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의 2분기 호실적은 곧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특히 GPU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을 공급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프 순수전기차 '어벤저' 상륙

'2023 유럽 올해의 차' 수상
제리칸 등 지프 아이덴티티 계승



지프 첫 순수전기차 '어벤저'.

아메리칸 프리미엄 브랜드 지프의 첫 순수 전기차 '어벤저(Avenger)'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어벤저는 지프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BEV)로 지난 2022년 말 유럽에 가장 먼저 선보이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 특히 브랜드 최초로 '2023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고, 같은 해 '세계 여성 자동차 기자가 뽑은 2023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패밀리 SUV'로도 선정되며 이름을 톡톡히 알렸다.

소형 B 세그먼트 경쟁이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출시 1년 6개월여 만에 10만대 계약을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는 어벤저의 매력을 알아봤다.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높고 까다로운 유럽 고객에게 먼저 검증받은 모델답게 전문가들은 전동화 움직임 속에서도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잘 계승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어벤저는 전기차 모터가 즉각적으로 발휘하는 최대 파워를 기반으로, 지프만의 셀렉-터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을 갖춰 예코·일반·스포츠 모드는 물론 샌드·머드·스노우 등 다양한 주행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전천후 성능을 지원한다. 여기에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HDC)까지 기본 탑재돼 저속 영역에서는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하다. 아울러 200mm의 지상고와 615mm의 시트 높이는 소형 차체임에도 SUV에 걸맞은 주행 포지션을 선사해 정제된 도로에

서는 물론 좁은 골목 주행 시에도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디자인과 동급 대비 최상의 기술력이 적용된 실용적인 차량이라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벤저는 지프의 기존 엔트리 모델인 '레니게이드' 보다도 콤팩트한 차체를 자랑하면서 박시 스타일 실루엣과 각진 세븐-슬롯 그릴, LED 테일 램프에 적용된 X자 '제리칸(후대용 연료통)' 디자인 디테일 등으로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했다. 트렁크 공간 또한 321L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톡톡 튀는 지프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프의 막내 어벤저는 오는 8월 말 미디어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팬들에게 첫 인사를 건넨 뒤, 내달 4일 국내 고객들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국내 판매 가격은 론치뷰드 트림이 5290만원, 알티튜드 트림이 56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대전력망 기술회의(CIGRE)에서 방문객들이 LS전선·LS일렉트릭의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LS전선



효성중공업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효성의 차세대 전력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효성

K-전력기기업체, 유럽서 미래전력 솔루션 뽐낸다

CIGRE 파리세션 2024
LS전선·LS일렉트릭
IDC용 초전도 솔루션 전시
효성 저탄소 전력기기 소개

국내 전력기기업체들이 AI 및 신재생 발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유럽에서 미래 전력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최대 전력망 박람회인 'CIGRE(시그레, 국제전력망협의회) 파리 세션 2024'가 개최된다.

LS전선과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초전도 전류제한기로 구성된 IDC용 초전도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IDC는 AI 산업의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변전소 신설이 주민 수용성과 사업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전도 솔루션은 변전소 설

비도 22.9kV(킬로볼트)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또한 LS전선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LS일렉트릭은 변전소용 친환경개폐장치 등 전력망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HVDC 해저케이블과 LS일렉트릭의 변전 설비는 전세계 Top 수준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양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력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변압기, 차단기, ESS(에너지저장장치), STATCOM(정지형무효전력보상장치), HVDC(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 등 회사가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전력기기 및 시스템 솔루션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인

GIS,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성을 높이는 ESS와 미래 송전망 건설의 핵심 기술인 HVDC를 전면에 내세워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유럽 고객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전시회 기간 중 'Future Grid Insight Forum'이라는 글로벌 주요 고객 대상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AI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 디지털 변전소, 탄소중립 등의 주제 발표와 효성중공업 유럽 R&D센터의 SF6-Free GIS(저탄소 전력기기)가 소개될 예정이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효성중공업이 탄소저감·고효율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온 만큼, 미래 전력시장에서도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V2X모듈' 국제표준 인증

글로벌 전장시장 경쟁력 확보 기대

LG전자 차량·사물간 통신 'V2X' 모듈이 세계 최초로 보안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차량에서 외부 메시지를 안전하게 송수신하는 '메시지 보호'와 외부에서 특정 차량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량 제어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하는 '접근 제어' 등 주요보안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V2X는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이다. 주변 교통 상황과 차량의 접근 등을 알려주는 'V2V',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소통하는 'V2I', 보행자 정보를 확인하는 'V2P' 등으로 구성된다.

LG전자는 이번 CC 인증 획득을 통해 완성차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글로벌 전장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삼성전자, 비스포크 가전 '빅스비' 적용

(AI 음성비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에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가 적용된다. 자연어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음성 명령으로 가전을 더욱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된 비스포크 AI 제품 라인을 중심으로 신규 빅스비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 문장에 여러가지 명령을 담아 말해도 가전제품이 각 의도

를 이해할 수 있고 ▲앞의 대화를 기억해 다음 명령까지 연결해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기 관련 궁금증과 답변을 말로 묻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빅스비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제품은 올해 출시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 에어컨이며, 적용제품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